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삶의 만족도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조 윤 주*
(성신여자대학교)

한 준 아
(수원과학대학교)

김 지 현
(한양사이버대학교)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에 재원중인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삶의 만족도를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이 때 독립 변인은 결혼 만족도, 부모 역할 만족도, 직업 만족도로 주요 변인들의 전반적인 경향과 이 변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맞벌이 부부 73쌍으로 총 146명이었는데 질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기술 통계, paired-t 검증, 위계적 중다회귀 방법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결혼 만족도와 부모 역할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었으나 직업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는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맞벌이 부부간 차이에 있어 결혼 만족도는 남편이, 직업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는 아내가 높았다. 셋째, 맞벌이 부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편과 아내 모두 결혼 만족도와 직업 만족도였으며, 남편의 경우 교육 수준도 영향 변인으로 포함되었다. 본 연구 결과의 함의로서 가족 관계 및 직업 생활의 중요성과 이를 통해 삶의 질을 증진시킬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였다.

주요용어: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결혼 만족도, 부모 역할 만족도,
직업 만족도, 삶의 만족도

교신저자: 조윤주, 성신여자대학교(biju0501@naver.com)

■ 투고일: 2012.7.30 ■ 수정일: 2012.9.3 ■ 게재확정일: 2012.9.21

I. 문제 제기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따라서 많은 이들은 이에 대한 답을 얻고자 어떻게 하면 행복해 질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으로 행복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탐구하여 왔다. 개인이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하여 양질의 삶을 사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념이 사용되는데 대표적인 측정 기준으로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가 언급된다.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고려시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에 차이가 있으므로, 삶의 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혼 생활, 수입, 직장 유무 등 개인의 삶에 있어 다양한 측면을 구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Kahn & Juster, 2002). 또한 Bowling과 Windsor(2001)는 삶의 질을 여섯 가지 주요 영역으로 설명하여 가족, 친구, 친척 등 타인과의 관계, 경제적인 것, 자신의 건강, 타인의 건강,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이에 대한 만족, 사회 생활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학자들이 제안하는 공통적인 영역으로 대개 가족이나 일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된다.

가족과 일 중에서도 주안점을 두는 영역에 성차가 존재하며 전통적인 성역할의 차이로 인해 남성에게는 일을, 여성에게는 가정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여 왔다(Guttek et al., 1991). 그러나 남녀 모두에게 가족이 중요함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며 일에 대한 관심 또한 더욱 중시되고 있다. 유자녀의 기혼 여성 취업율이 미혼 여성을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서울시(2012)의 발표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여성의 취업도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일찍이 Parsons(1955)가 언급한 공적 영역에서 남성의 도구적 역할과 사적 영역에서 여성의 표현적 역할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는 것이다(김지현 외, 2008, 재인용). 이처럼 생계 부양자로서의 역할이 남성만의 몫이 아닌 것과 같이 여성이 자녀의 주 양육자로서 역할하는 것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어 이른바 여성에 대한 ‘수퍼우먼 콤플렉스’가 대두되었고 최근에는 이에 상응하는 ‘수퍼대디’에 대한 요구가 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의 취업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는 세태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여성 취업자는 20대 후반 증가하였다가 출산 및 육아에 직면해 있는 30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감소, 이후 40~44세에 다시 증가하는 M자형의 구조를 보인다. 이에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직장가 가정 생활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 다수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로 적용되는 모델은 전

이 모델(Spillover model), 분리 모델(Segmentation model), 그리고 보상 모델(Compensation model)이다(Kabanoff, 1980). 직장이나 가정 생활 중 어느 한 영역에서의 만족이나 불만족의 정도가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전이 이론이 있는가 하면, 이 영역들은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상호 영향은 끼치지 않는다는 분리 이론의 반론도 제기된다. 보상 모델의 경우 한 영역에서 느끼는 불만족을 다른 영역에서 보상받으려 한다는 입장인데 세 모델 중 지금까지 전이 모델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즉, 일과 가정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 영역임은 분명하며 중요한 것은 이것들의 관계가 개인의 주된 관심사에 좌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Dubin(1956)은 이를 ‘생의 주된 관심(central life interests)’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는데(방하남, 2002 재인용), 첫째 유형은 일이 생의 주된 관심사인 ‘일 중심형(job-oriented)’이다. 이는 생활보다는 일에서의 보람과 만족감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둘째 유형은 ‘생활 중심형(nonjob-oriented)’으로 일보다는 개인의 사적 여가를 보다 중시한다. 따라서 생활에서의 보람 및 만족도가 일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다. 셋째 유형은 두 영역 가운데 특별한 선호가 없는 ‘유연형(flexible focus)’인데 영역들에서의 만족도 중 어떤 한 방향으로 지배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서로의 영향력이 유사하다.

부부의 취업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직장인으로서의 역사가 남성보다 길지 않은 여성에게 이들이 어머니로서, 직장인으로서, 다중 역할을 할 때 이에 대한 영향을 알아본 연구들은 비교적 많이 축적되어 왔다. 예를 들어 가정-직장 갈등에 초점을 두거나(가영희, 2006), 세부적으로 어머니로서 취업 여성의 자녀 양육에 관한 연구 또는 취업과 비취업 여성을 비교한 연구들이 보고된다(문혁준, 2004; 손수민, 2012). 또한 여성의 취업 여부와 부부 관계를 다룬 연구들도 있다(조정문, 1995; 현경자, 2005). 여성을 대상으로 할 때 직장인의 역할이 새로이 부여된 것이라면 남성의 취업과 관련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박정아, 2004; 이명주, 2002). 최근 가족과 관련하여 배우자 변인을 포함한 연구(이은아, 2007)도 수행될 뿐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부상하여 이에 대한 연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김소영·옥선화, 2000; 남효정·이숙현, 2011; Canfield, 1995).

그렇지만 상기한 연구들의 주제는 부모 역할이나 부부 관계 또는 직장인으로서의 영향을 각각 접근하여 단편적인 결과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동일한 부부를 표집하여 양자간의 시각을 동시에 분석한 연구는 흔치 않다. 또한 이용된 주요 변인은 유능

감, 스트레스, 우울감 등 다양하나 삶에 대한 총체적인 만족도는 알기 힘든 제한점이 있다. 현재 많은 선진국에서 저출산을 경험하고 있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는 이러한 현상의 일차적인 원인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Bonoli, 2007). 우리 사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남성 부양자(male breadwinner)와 여성 돌봄제공자(female caregiver)의 성별 분업이 희석되어 남성의 아버지 역할과 여성의 직장인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에 재원하는 자녀를 둔 부부를 대상으로 삶의 주요 영역을 부부 관계와 부모 자녀 관계, 직업의 만족 정도로 선정하여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볼 것이다.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삶에 대한 현상을 진단하고 삶의 질을 고양하는 방안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 대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 문제 1.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결혼 만족도, 부모 역할 만족도, 직업 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 문제 2.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간 결혼 만족도, 부모 역할 만족도, 직업 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 차이는 어떠한가?
- 연구 문제 3.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인구학적 변인과 결혼 만족도, 부모 역할 만족도, 직업 만족도 중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변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선행 연구 고찰

1. 삶의 만족도

삶의 질은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건강과 수명, 경제적인 생활 수준, 직업과 관련한 기회와 선택의 다양성, 교육 기회와 교육 받는 여건, 문화 향유의 기회, 그리고 범죄로부터의 안전 등을 포함한 객관적인 지표를

의미한다. 후자의 차원에서 삶의 질은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의 상태를 개념화한 것이다. 이 때 삶의 질은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 구성원들이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영역에서 객관적인 조건을 어떻게 주관적으로 인지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한데 종합하면 ‘객관적이고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내적인 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삶에 대한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Campbell, 1981; Eid & Diener, 2004). 그리고 관련되는 주요 구인으로 Campbell(1981)은 삶의 영역에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여가 생활 및 우정이 중요하며 이 중 가정 생활이 제일 우선된다고 주장하였고, Near 외(1983)는 전반적인 삶의 맥락에서 직장 생활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상기한 바와 같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이 있으나 가정 영역에서는 부부 관계나 자녀 관계가, 그리고 직업 영역과 연관된 연구들이 주 축을 이룬다. 일례로 가영희(2006)는 직장-가정 갈등이 영역별 만족도와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더니 여성이 남성보다 가정→직장 갈등, 가정 갈등 및 직장 갈등 수준이 높았으나 가정 생활 만족도, 직장 생활 만족도, 여가 생활 만족도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러 영역별 만족도 중 이들의 삶의 질에는 가정 생활 만족도, 여가 생활 만족도 및 직장 생활 만족도가 영향을 미쳐 이에 대한 만족도들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으며 이 중 가정 생활 만족도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자녀 변인을 위주로 하고 여성의 취업 여부로 구분하여 연구한 김지현(2011)은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 효능감, 부모 역할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취업모는 월수입이 높을수록, 남편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 역할에 자신감이 클수록, 부모 역할 수행 능력이 높을수록, 부모 자녀 관계가 좋을수록, 부모 역할 갈등의 대처 능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모는 이 중 월수입과 남편의 학력 변인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하오령과 권정혜(2006)는 미취학 자녀를 둔 사무직 여성만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경험하는 역할 갈등은 우울, 불안, 신체화 증상과 같은 심리적인 증상, 그리고 결혼, 양육, 직무 역할 만족과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 특히 가정내 요구가 직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가정-직무 역할 갈등은 우울, 불안, 결혼 불만족도를, 직무-양육 역할 갈등은 우울, 신체화, 직무 불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인이었다. 이 연구는 본 연구의 주된 관심 변인을 모두 고려하

기는 하였으나 여성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는데 차이가 있다. 또 다른 연구(황혜원, 2012)에서 어린 자녀를 둔 저소득 취업모의 심리적 복지를 알아보았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적극적 대처 기제, 직업 만족도, 이웃 환경의 질 순임이 발견되었다. 중고령의 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여진·홍환, 2009)에서도 자녀와 동거를 하는 경우, 직업에 만족할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업 생활의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은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보고될 정도로(박정아, 2004; 이명주, 2002), 이들에게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방하남(2000)의 연구에서 일의 영역에서 만족도가 크면 생활에서의 만족도도 크다고 하였다. 또한 김영선과 옥선화(2005)의 연구에서도 가족 기업 종사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육 수준, 일일 근무 여부, 기업 년수, 직업 만족도였으며 이 중 직업 만족도가 가장 큰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중년기 남성을 대상으로 가족과 직업 관련 변인이 생활 만족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본 이은아(2007)는 결혼 만족도와 부모 역할 스트레스, 그리고 직업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음을 규명하였다. 즉, 결혼 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 역할에 대한 스트레스와 직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남성의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 중에서도 직업 스트레스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이 연구는 부모 역할과 직업을 스트레스 변인으로 측정하여 본 연구의 관심 변인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맥상통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삶의 주요 영역과 관련된 변인외에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연령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판단하게 됨으로써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다고 주장하는 연구(Campbell, 1981)가 있는가 하면, 연령 증가와 삶의 만족도와는 반비례한다는 연구(권태연, 2009)도 있다. 교육 수준과 경제적 여건은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수입이 많을수록, 일상 생활에 대한 적응이 원활하여 삶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김영선·옥선화, 2005; 방하남, 2000; 황혜원, 2012). 교육이나 경제적 수준도 성별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남성들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았던 반면, 여성들의 교육 수준은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윤종희·이혜경, 1997). 또한 종교에 있어서는 이것이 생애동안 영향을 미쳐 종교로부터 인생의 의미를 얻는 사람이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Krause, 2003).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대개 남성이 여성보다 높지만(박기남, 2004), 장재윤 외(2007)의 연구에서는 취업 여성이 취업 남성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이처럼 가족 뿐 아니라 직업 생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것에 대한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간 상호 관계는 최근 더 강화되고 있다. 이는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가 늘어나는 등 삶의 영역별 책임에 대한 성별 과외에 기인하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어 가정 및 직업 영역과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는 것은 시의적절할 것이다. 이 때 연령이나 교육 수준, 수입과 종교 등을 통계 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결혼 만족도

결혼 만족도는 부부 관계를 포함하여 결혼 생활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어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족 정도로 가족의 기능을 평가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이에 대해 부부 관계가 가족과 사회의 기본이 되는 하위 구조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삶의 만족은 가족의 만족이 전제가 되며 가족의 만족은 부부의 만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Olson et al., 1989). 환언하면,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 한 경우 본인이나 상대 배우자 뿐 아니라 자녀의 안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개인과 가족의 복지외에 궁극적으로 사회의 발전에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결혼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대상으로 배우자가 우선이라는 현경자와 김연수(2002)의 연구에서 뒷받침되었듯이 배우자와의 관계 양상이 다른 관계의 토대가 됨을 알 수 있다.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외적인 요소로 대표적인 것은 자녀의 수와 직업 유무이다. 우선 자녀 수에 따른 부부 갈등은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나(김갑숙·최외선, 1992), 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결혼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Vannoy-Hiller & Philliber, 1989). 왜냐하면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이 많고 이들이 우선되기 때문에 자녀로 인해 부부간의 공유 시간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녀의 존재가 부정적이지만 한 것은 아니어서 자녀가 결혼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자녀가 어릴 경우 결혼 생활에 안정감을 제공해 준다는 의견도 제시된다(Bradbury et al., 2000).

직업 유무에 대해 남성의 직장 생활은 이들이 가장으로서 부양 의무를 담당하는 비중이 컸었기 때문에 남성의 취업은 당연시되었고 여성의 경우 직업 유무가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다. 아내의 취업 여부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결과가 있는가 하면(조정문, 1995), 취업을 하지 않은 여성의 결혼 만족도가 더 높다는 연구도 보고된다(현경자, 2005). 연령별로 구별하여 결혼 만족도를 살펴본 김미령(2009)의 연구에서는 30대 여성의 경우 부부 관계 요소인 활동 공유, 가사 분담 만족, 남편의 육아 및 가사 시간이, 40대는 활동 공유가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나 본인의 취업 유무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는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본인이 지각하는 만족도는 달라지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대체로 남성의 결혼 만족도가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는데(김민희·민경환, 2007; 현경자·김연수, 2002), 여성의 지위와 가치관의 변화,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한 가정내의 상황 변화를 볼 때 부부간 결혼 만족도를 알아보는 것은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3. 부모 역할 만족도

부모 역할 만족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자녀와의 정서적 만족도에 초점을 둔 개념이다. Guidubaldi와 Cleminshaw(1989)는 부모가 자녀 양육을 통해 느끼는 만족감이 일상적인 긴장이나 갈등 요소와 같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부모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부모-자녀라는 하위 체계가 긍정적임으로 해서 가족 체계가 건강해지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Belsky(1984)는 부모 역할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부모 개인의 심리적 요인, 유아의 특성, 결혼 관계, 직업 요인, 긴장 또는 도움을 주는 주변 상황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로서의 역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어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비교한 상당 수의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는 여성이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양육 스트레스를 주 관심사로 선정하여 살펴본 연구들이 다수이다.

이를테면 취업모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자녀 양육이고 특히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의 주의와 보살핌이 더욱 필요하다고 인지하며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을 더 많이 느껴 양육 스트레스가 높았다(문혁준, 2004). 하지만 취업 여성이 항상 취약한 결과만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도 보고된다. 예를 들어 손수민(2012)의 연구에서는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비교하여 양육 스트레스를 살펴보았다. 결과, 취업모에 비해 비취업모가 더 높은 수준의 양육 스트레스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양육 비용, 육아 정보 선택,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대한 책임감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인으로 취업모의 자기 효능감과 부모됨의 태도가 비취업모에 비해 더 높았다.

부모 역할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일차적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핵가족화와 기혼 여성의 경제 활동 증가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유도한다. 이에 아버지에 초점을 둔 연구들도 등장하고 있는데 자녀 양육의 주 책임자를 여성으로 전제하여 이들에 대한 지지원으로 접근하기도 하며, 아버지를 자녀 양육의 주체로서 다루기도 한다. 전자의 예로 아버지 양육 과정 참여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며 이들에게 정신적인 지지자의 역할을 통해 배우자에 대한 만족감을 고양시켰다(남효정·이숙현, 2011; 이영환, 2008). 후자의 예는 아버지만의 독특한 역할 수행에 관한 연구(Canfield, 1995)로 아버지 역할 수행 영역은 자녀 양육 역할, 남편의 역할, 부양자 역할, 양육자의 일관성, 자녀 이해도, 자녀와의 대화, 아버지의 정신적 자세 측면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김정주와 김용미(2011)는 취업 남성의 직업 만족도와 결혼 만족도는 아버지 역할 수행과 정적 상관률 보여 직업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버지 역할 수행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이중 부담으로 인해 취업 여성의 부모 역할 만족도가 더 낮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자녀 양육과 가사 노동을 전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비취업 여성의 어려움이 좀 더 많다는 상반된 경향이 존재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여성만으로 대상이 편중된 것과는 달리 남성의 양육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부 양자를 포괄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4. 직업 만족도

직업 만족도란 자신의 직업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느낌으로 본인의 직업을 스스로 평가해서 직업 생활에 대한 개인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취업과 관련된 특성으로서 취업 유형이나 소득, 출퇴근 및 근무 시간, 근무 조건 융통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 때 가족 변인도 포함하여 배우자의 지지가 매우 중요함을 언급

한 연구(김리진·윤종희, 2000)도 있다. 이러한 업무 관련 요인과 직업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박은옥(2001)의 연구에서는 연령, 교육 수준, 직업, 고용 상태 및 결혼 만족도가 남녀 모두의 직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규직의 고용 상태와 결혼 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 변인이었는데 특이하게도 연령면에서 남성은 연령이 많을수록, 직업 만족도가 높은 반면 여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의 직업 만족도 차이를 비교한 최정혜(2005)는 아내의 직업 만족도가 남편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은 아내의 경우 인지 재구조화 대처 전략이, 남성의 경우 자아 존중감이었다. 한편 취업모의 직업 만족도는 취업 유무보다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다(이선희·도현심, 2007).

문혁준(2004)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연령이나 아버지의 교육 수준이 직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가사 도우미의 존재가 직장 여성의 가정-일 전이에 긍정적이라는 연구도 있다(김옥선·김효선, 2010). 김소영과 옥선화(2000)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기혼 남성은 직업 역할에 비해 아버지 역할에 더 몰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사회 통념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고 제안하였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영유아동기 자녀를 둔 30대 남성 집단의 가족 생활 주기 단계상 특성과 직업 환경 특성이 결합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즉, 우리 사회의 남성들이 실제로 아버지 역할에 대해 중요성과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잘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는 하나 여러 규범과 환경적인 제약으로 인해 사고의 변화가 행동으로 구현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처럼 일이 남성만의 고유 영역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여성의 취업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녀간 직업 만족도를 살펴보는 것은 최근의 세태를 반영한 적절한 접근으로 사료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하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맞벌이

이 부부 73쌍으로 총 146명이었다.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 5곳을 유의 표집하였는데 연구 참여에 동의한 부모를 대상으로 질문지 436부를 배포하여 384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내용이 부실하게 기재되었거나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146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령의 경우 남편은 31세부터 최고 47세까지로 평균 연령은 38.6세였으며, 아내는 29세에서 46세까지로 평균 연령은 36.5세였다. 이 중 ‘36~40세’가 남녀 모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교육 수준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남녀 각각 64.5%, 49.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초대졸’로 남편이 20.5%, 아내는 27.4%였다. 혼인 상태는 모두 유배우자로 ‘초혼’이었다. 직업에 대해 남편은 ‘일반사무직(37.1%)’, ‘일반기업체임원/정부고위공무원(1~5급)(19.2%)’의 순이었고 아내도 ‘일반사무직(28.8%)’이 가장 많았다. 수입면에서 남편은 ‘401~500만원’이 28.8%로 비중이 높았고 아내는 ‘101~200만원(37.0%)’이 제일 많았다. 종교는 ‘있음’과 ‘없음’이 각 43.8%, 56.2%로 종교가 없는 비율이 높았다.

자녀와 관련된 정보로 기관에 재원중인 자녀의 성별은 ‘아들’이 38명(52.1%), ‘딸’이 35명(47.9%)이었다. 연령은 ‘6세(37.0%)’가 가장 많았고, ‘4세(34.2%)’, ‘5세(23.3%)’의 순이었다. 총 자녀 수는 ‘2명’이 58.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1명(21.9%)’, ‘3명(19.2%)’으로 나타났다.

2. 연구 도구

가.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Diener 외(1985)가 개발한 ‘Satisfaction with Life Sale’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원래 7점 척도였으나 안면 타당도 검증을 통해 7점 척도 측정시 응답자가 세분화하여 응답하는 민감성이 떨어지고 응답의 중앙 집중 경향을 방지하고자 4점 척도로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대체로 나의 생활은 내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생활과 비슷하다’, ‘나의 생활 여건은 아주 좋다’, ‘나는 나의 생활에 만족한다’ 등이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 중 선택하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5점에서부터 2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할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	남편(n=73) 명(%)	아내(n=73) 명(%)
연령		
30세 이하	-	2(2.8)
31~35세	15(20.6)	29(39.8)
36~40세	36(49.3)	34(46.6)
41~45세	18(24.7)	7(9.5)
46세 이상	2(2.8)	1(1.3)
무응답	2(2.6)	-
교육 수준		
중졸	-	1(1.3)
고졸	10(13.7)	16(21.9)
초대졸	15(20.5)	20(27.4)
대졸	39(53.4)	31(42.6)
대학원졸 이상	8(11.1)	5(6.8)
무응답	1(1.3)	-
혼인 상태		
배우자 있음	73(100.0)	좌동
직업		
생산단순직	1(1.3)	4(5.6)
자영업	13(17.9)	3(4.1)
서비스유통(판매)	-	1(1.3)
일반사무직(공무원5급 미만~9급)	27(37.1)	21(28.8)
전문직	4(5.6)	5(6.8)
기업주	1(1.3)	-
일반기업체임원/정부고위공무원(1~5급)	14(19.2)	5(6.8)
기술기능직	8(11.0)	10(13.7)
교사	2(2.7)	10(13.7)
목사	1(1.3)	-
학원강사	1(1.3)	3(4.2)
시간제 취업	-	9(12.3)
무응답	1(1.3)	2(2.7)
수입		
100만원 이하	-	16(21.9)
101~200만원	2(2.7)	27(37.0)
201~300만원	8(11.0)	20(27.4)
301~400만원	19(26.0)	3(4.1)
401~500만원	21(28.8)	3(4.1)
501만원 이상	23(31.5)	4(5.5)
종교		
있음	32(43.8)	좌동
없음	41(56.2)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 α 는 남편과 아내 각 .868과 .865였다.

나. 결혼 만족도

결혼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Roach 외(1981)가 개발한 ‘Marital Satisfaction Scale’ 18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동의한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내용은 ‘나는 결혼 생활에 대한 근심, 걱정이 많다’, ‘나는 결혼 생활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스럽다’ 등이며 일부 문항은 역채점하여 합산하였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18점부터 7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상의 만족도가 높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Cronbach α 는 남편 .902, 아내 .911이었다.

다. 부모 역할 만족도

Duke 외(1990)의 ‘Parental Satisfaction Scale’을 서혜영과 이숙현(2002)이 요인 분석하여 18문항으로 재구성한 척도를 이용하여 부모 역할 만족도를 파악하였다. ‘자녀를 갖는 일은 모든 희생을 감수할 만큼 가치있는 일이다’, ‘나는 부모가 됨으로써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었다’ 등의 내용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 중 응답하게 하였으며 일부 문항을 역채점하여 합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Cronbach α 는 남편 .954, 아내 .942였다.

라. 직업 만족도

직업 만족도는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방하남(2000)이 개발한 8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는 본래 5점 척도이나 4점 척도로 재구성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 중 선택하게 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나는 현재 소득에 만족한다’, ‘현재 나의 일자리는 안정적이다’ 등으로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남편 .896, 아내 .826이었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적인 경향을 알아보고자 각 측정 변인별로 평균과 표준 편차, 빈도를 산출하였다. 둘째, 부부간 주요 변인의 차이는 paired-t 검증을 실시하여 살펴보았다. 셋째, 주요 변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이용하였는데 이전에 Pearson의 적률 상관 계수를 통해 변인간 상호 상관 관계를 구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의 일반적인 경향과 부부간 차이 검증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 문제인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의 주요 경향과 두 번째 연구 문제인 부부간 차이를 알아보기로 기술 통계 산출과 paired-t 검증을 하였는데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결혼 만족도는 중간 점수인 45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 대상자들의 결혼 만족도는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부부간 차이는 남편의 결혼 만족도가 아내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였다($p < .05$). 다음 부모 역할 만족도는 중간 점수(45점)를 고려해 볼 때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해석된다. 단, 부부간 차이는 남편이 조금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직업 만족도는 중간 점수인 20점과 비교한다면 대략 평균치에 근접하였는데 남편은 21.8점, 아내는 23.0점으로 아내가 다소 높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종속 변인인 삶의 만족도는 남편이 12.7점, 아내가 13.4점으로 중간 점수인 12.5점과 거의 유사하여 보통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삶의 만족도 수준 또한 아내의 점수가 약간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표 2. 주요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 및 차이 검증

변인	점수 범위	평균(M)	표준 편차(SD)	paired-t	
결혼 만족도	남편(n=73)	18~72점	58.68	8.14	1.93*
	아내(n=73)	18~72점	56.93	9.13	
부모 역할 만족도	남편(n=73)	18~72점	61.96	8.06	.318
	아내(n=73)	18~72점	61.59	7.65	
직업 만족도	남편(n=73)	8~32점	21.83	4.69	-2.053*
	아내(n=73)	8~32점	23.01	3.91	
삶의 만족도	남편(n=73)	5~20점	12.65	2.62	-2.213*
	아내(n=73)	5~20점	13.38	2.81	

* p<.05

2. 부부별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변인

세 번째 연구 문제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주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에 앞서 산출한 독립 변인간 상관 계수가 최저 $r=-.425^{***}$ 부터 최고 $r=.549^{***}$ 로 모두 $r=.700$ 미만이었다(<표 3>). 그리고 남편 집단의 공차와 분산팽창지수는 .876과 1.141이었으며 아내 집단은 .594, 1.682로 모두 공차는 1미만, 분산팽창지수는 10이하였다. 이외에 Durbin-Watson 계수는 남편의 경우 1.844, 아내의 경우 1.951로 2에 근접하였다. 또한 Eigen 값은 남편과 아내 각각 9.251, 9.227로 15이하여서 상기한 수치들을 종합해 볼 때(김태근, 2006), 본 자료가 회귀 분석을 적합한 모형이었다. 분석시 남편과 아내로 구분하였으며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표 3. 주요 변인간 상호 상관 계수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연령(1)	1.000	.115	-.189	-.085	-.401**	-.092	.024	.032	.012	.077	.037
교육 수준(2)	.038	1.000	.413***	-.228	.050	-.214	-.090	.117	-.021	.294*	.466***
수입(3)	-.184	.293*	1.000	-.022	.005	-.139	-.081	.065	-.259*	.333**	.167
종교 유무(4)	-.037	-.086	-.123	1.000	.060	.094	.080	-.096	-.030	-.111	-.244*
자녀 연령(5)	-.425***	-.069	.128	.060	1.000	-.087	.160	-.085	-.128	-.115	-.137
자녀 수(6)	-.047	-.127	-.127	.094	-.087	1.000	-.079	-.033	.130	.185	.087
주 양육자 여부(7)	-.209	-.053	.174	.080	.160	-.079	1.000	.004	-.023	-.213	-.043
결혼 만족도(8)	.245*	-.043	.110	-.070	.069	-.006	.008	1.000	.462***	.450**	.493***
부모 역할 만족도(9)	.128	-.094	-.205	-.109	-.055	.047	-.171	.437***	1.000	.173	.292*
직업 만족도(10)	.016	.061	.549***	-.071	-.053	.047	.223	.327**	.139	1.000	.488***
삶의 만족도(11)	.065	.075	.235*	-.156	.019	.023	.108	.566***	.353**	.545***	1.000

주: 대각선을 기준으로 우측 상단은 남편, 좌측 하단은 아내의 수치임

* p<.05, ** p<.01, *** p<.001

회귀 분석시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간 상관 관계가 유의한 변인 위주로 투입하였는데 먼저 남편 집단은 1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교육 수준과 종교 유무를 투입하였다. 결과, 교육 수준($\beta=.357^{**}$)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설명력은 18.0%였다($F=7.361^{**}$). 다음 2단계에서는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외에 주요 영역별 만족도를 투입하여 30.0%의 설명력이 증가하였으며 삶의 만족도의 총 48.0%를 설명하였다($F=11.836^{***}$). 이 때 교육 수준($\beta=.231^{*}$)은 여전히 유의한 변인으로 남아 있었으며, 결혼 만족도($\beta=.227^{*}$)와 직업 만족도($\beta=.373^{**}$)도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즉, 남편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중 직업 만족도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표 4>).

다음 아내 집단의 분석은 남편 집단과 동일한 절차를 거쳤다. 1단계에 투입한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아내의 수입($\beta=.230$)으로 설명력은 5.3%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3.571$). 2단계에서는 아내의 수입외에 주요 영역별 만족도를 추가하여 투입, 40.3%의 설명력이 증가하였고 총 45.6%를 설명하였다($F=15.064^{***}$). 결과, 결혼 만족도($\beta=.420^{***}$)와 직업 만족도($\beta=.346^{**}$)가 유의한 변인이어서, 환언하면, 결혼 만족

도가 높을수록, 직업 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내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 만족도가 직업 만족도보다 영향력이 더 컸다(<표 5>).

표 4. 남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 결과

(N=73)

변인	1단계 β	2단계 β
교육 수준	.357**	.231*
종교 유무	-.188	-.162
결혼 만족도		.227*
부모 역할 만족도		.101
직업 만족도		.373**
ΔR^2	.180	.300
R^2		.480
F	7.361**	11.836***

* $p < .05$, ** $p < .01$, *** $p < .001$

표 5. 아내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 결과

(N=73)

변인	1단계 β	2단계 β
수입	.230	.009
결혼 만족도		.420***
부모 역할 만족도		.105
직업 만족도		.346**
ΔR^2	.053	.403
R^2		.456
F	3.571	15.064***

** $p < .01$, *** $p < .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주요 구인의 경향과 이것이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첫째, 결혼 만족도와 부모 역할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직업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는 중간 점수에 근접하였다. 또한 부부간 차이에서 결혼 만족도는 남편이 아내보다 높았고 직업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는 아내가 남편보다 높았다. 대체로 결혼 만족도는 결혼 시기에 따라 U자형의 형태를 그리는 것으로 보고되나(정현숙·유계숙, 2007), 본 연구에서 점수가 높았던 것은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이 남편 38.6세, 아내 36.5세로 결혼 만족도의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아직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최근 만혼의 경향을 고려해 보면 이들이 신혼기를 보낸 지 그리 오랜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남편의 결혼 만족도가 아내보다 더 높았던 것은 선행 연구들(김민희·민경환, 2007; 조정문, 1995; 현경자·김연수, 2002)과 일관된 결과였다. 즉, 여러 연구에서 설명되는 공평성의 문제로 설명 가능한데 여성보다 남성이 결혼을 통해 얻는 보상을 지불해야 하는 비용보다 더 많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혼 남성보다 미혼 여성에게서 ‘결혼을 꼭 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더 적었던 조사 결과(통계청, 2010)와 연관될 수 있어 그만큼 여성이 가정 생활을 유지하는데 희생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혼을 주저하는 경향이 높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결혼 후에도 여성의 결혼 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나기 쉽다.

한편 본 연구에서 분석된 부모 역할 만족도 수치를 볼 때 자녀의 존재가 부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취업 여성의 양육 스트레스가 더 적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손수민, 2012; Guidubaldi & Clemishaw, 1989)를 지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조사시 부모 역할 만족도를 측정하는 내용 중 ‘자녀가 성장해 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다(M=3.65)’라는 문항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는 자녀의 존재와 부모 역할에 만족함을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 남편의 부모 역할 만족도가 아내보다 높았으며, 남편의 결혼 만족도와 부모 역할 만족도의 상관은 $r=.462^{***}$, 아내는 $r=.437^{***}$ 이었다. 결혼 만족도가 높은 남편이 아버지 역할 수행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난 김정주와 김용미(2011)의 연구와 흡사한 결과여서 부부 관계와 부모 자녀 관계의 관련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맞벌이 부부 중 아내의 직업 만족도가 남편보다 높았던 것은 최정혜(2005)의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기혼의 취업 여성이 다중 역할의 상황에서도 높은 만족감을 경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정내에서 육아와 가사를 전담해야 하는 전업 주부와는 달리 취업 주부는 직장 생활을 통해 성취감 내지 사회에서 유용한 존재로서의 자존감을 습득할 기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부모 역할에서의 불만족이나 부담감을 직장 생활에서 보상받거나 완충할 수 있으므로 여성의 다중 역할이 부정적인 스트레스원이라는 예상은 편견일 수 있다. 이처럼 심리적 측면외에도 실질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취업을 통해 얻게 되는 수입이나 복리 후생의 혜택은 개인과 가정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자원이 된다(김옥선·김효선, 2010).

이는 비취업모와 비교한 연구이기는 하나 취업모가 더 많은 역할 갈등과 역할 부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 비취업모에 비해 낮지 않았던 Coverman(1989)의 연구와도 관련된 것이다. 진미정(2003) 역시 기혼 여성의 취업이 가족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사회에 연결되는 통로로 역할하므로 사회적 관계망 확대와 자존감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행복도를 증가시킨다고 제안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한 역할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이 축적되는 소위 ‘역할 축적(role accumulation)’을 통해 개인에게 이익이 되므로 아내의 삶의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전이가 촉진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남편의 직업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 본 연구 대상의 남편이 대개 중간 관리자에 해당되는 연령대이므로 급여 수준은 이전보다 높아졌지만 그만큼 직책에 따른 업무량과 스트레스가 증가되는 것이다. 따라서 직업 만족도가 저하되고 남성의 삶에 중요한 영역인 이 부분에서 낮은 수치는 낮은 삶의 만족도에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방하남(2000)의 연구에서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생활에 더 행복하지 못 했던 이유는 일의 영역에서 여성보다 불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던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그러나 직업 만족도나 삶의 만족도면에서 아내가 남편보다 높기는 하였으나 평균 수준에 머물렀는데 이는 1998년 이후 우리나라가 IMF 체제를 경험하면서부터 조기 퇴직, 청년 실업, 비정규직 증가 등 사회 전반에 팽배한 고용 불안의 외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유추된다. 또한 개인 내적으로도 자신이 투입한 노력 대비 일로부터 주어지는 성과를 만족스럽지 않다고 지각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Working poor’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것처럼 맞벌이나 투잡족 등 아무리 노력해도 경제적인 생활 여건이 그다지 개선되지 않고 녹록치 않아 불가피하게 직업 만족도나 삶에 대한 만족도도 결혼이나 부

모 역할 만족도만큼 높지 않은 것이다.

둘째, 부부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변인은 남편과 아내 모두 결혼 만족도와 직업 만족도였으며 남편은 교육 수준도 영향 변인으로 포함되었다. 관심 변인이 다소 상이한 관계로 절대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부부와 자녀, 직업과 관련하여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이전의 연구들(이은아, 2007; 하오령·권정혜, 2006)과 일관된 결과이다. 부부간 결혼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상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으나 흥미로운 것은 영향력의 크기에서 성차가 있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남편에게는 결혼 만족도보다는 직업 만족도가, 아내에게는 직업 만족도보다는 결혼 만족도가 삶의 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더불어 직업 선택의 기회,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여성의 지위가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남성에게는 직업 영역이, 여성에게는 결혼 영역이 보다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정체감은 ‘관계의 맥락’에서, 남성은 ‘분리의 맥락’에서 형성된다는 Gilligan(1982)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환언하면 아내는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만족을, 남편은 이보다는 독자적으로 직업상의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생의 주된 관심이 남편에게는 ‘일 중심형(job-oriented)’이 근접하고, 아내에게는 ‘생활 중심형(nonjob-oriented)’이 보다 적합하다고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남편의 경우 교육 수준이 삶의 만족도의 설명 변인이었던 것은 선행 연구들(김영선·옥선화, 2005; 방하남, 2002)과 동일한 결과인데 취업이 선택이 아닌 필수였던 남성에게 있어 학력은 직업 선택의 다양성과 관련해서 간과할 수 없는 자격 요건이다. 고학력 보유자가 고소득의 질 좋은 일자리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음을 감안하면 삶의 만족을 충족시키는데 기본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는 여전히 남성이 일차적인 생계부양자로 역할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고 상기한 바와 같이 직업 만족도의 영향력이 가장 컸던 결과와 연관된 것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한 함의로서 첫째, 결혼이나 부모 역할의 만족도 등 가족에 관련된 영역에서의 만족도는 높았지만 직업 영역에서의 만족도는 그렇지 않아 직업인으로서 만족감을 고양할 수 있도록 물질적, 비물질적인 동기 부여 등의 방안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 영역별 차이를 보인 것은 일과 가정 생활의 영향을 설명하는 모델 중 보완 모델에 근접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나타난 수치일 수도 있지만 직업과 관련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각을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즉, 공적 영역에서의 불만족을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보상받으려는 심리일 수 있고, 외부 환경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간 응집력을 강화시키는 반동으로도 볼 수 있다.

둘째, 가정 영역의 만족도가 높기는 하였으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직업 만족도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생존과 기본 생활을 영위하는데 소득이 필요하며 경제 활동이 이것의 주요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직업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부부나 자녀와의 만족도는 정서적인 위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직업은 주로 현실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영역별로 중시하는 인식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내보다 남편에게 영향력이 더 컸던 것은 우리 사회가 직업면에서 양성평등을 지향하나 아직까지는 과도기임을 보여 주는 실례이기도 하다.

셋째, 다른 주요 변인에 비해 부모 역할 만족도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끼치는 영향력이 적었던 것은 최근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관을 반영하는 결과일 수 있다. 여성 취업과 만혼으로 인해 가임 연령이 단축되고 출산 자녀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무자녀 가족을 선택하는 부부들도 있어 자녀의 존재가 필수가 아니며 자녀를 통해 얻는 기대치도 예전과 달리 낮아졌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전업 주부와 달리 취업 부부는 같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상대가 배우자로 나타난 연구 결과(장재운 외, 2007)가 이를 뒷받침한다. 결국 이는 저출산 문제와 연결되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만족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동일한 부부를 표집하였으며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그리고 직업 생활이라는 대표적인 삶의 주요 영역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만족도를 동일선상에 비교하였을 뿐 아니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점이 있다. 이를 통해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들의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의식 수준을 파악하였으며 개인의 삶의 질을 고양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접근해야 할 영역의 우선 순위를 규명할 수 있었다. 연구 대상이 수도권에 한정된 관계로 결과의 일반화에 유의함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변인들을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조윤주는 연세대학교에서 아동·가족학 학·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생산적 복지와 세대간 통합이다.

(E-mail: biju0501@naver.com)

한준이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연세대학교에서 아동·가족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수원과학대학교 아동보육과에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문제 행동이다.

(E-mail: jahan@ssc.ac.kr)

김지현은 연세대학교 학사,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석사, 연세대학교에서 아동·가족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한양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에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이다.

(E-mail: jihyunkim@hycu.ac.kr)

참고문헌

- 가영희(2006). 성인의 직장-가정 갈등이 영역별 만족도와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2), pp.163-186.
- 권태연(2009). 노년기 연소노인, 중고령노인, 초고령노인 집단의 스트레스 요인과 자아 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9(1), pp.164-196.
- 김갑숙, 최외선(1992). 아내가 인지한 부부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pp.133-143.
- 김리진, 윤종희(2000). 직장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직, 사무직, 및 생산직 여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14, pp.47-58.
- 김미령(2009). 연령대에 따른 여성의 결혼 만족도 차이 및 영향 요인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26(8), pp.35-62.
- 김민희, 민정환(2007). 중년기 부부의 애착과 결혼 만족: 애착 유형과 결혼 만족의 매개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7(1), pp.213-233.
- 김소영, 옥선화(2000). 기혼 남성의 아버지 역할과 직업 역할 몰입 유형화와 생활 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pp.125-139.
- 김여진, 홍환(2009). 중고령 전업 주부와 취업 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1, pp.93-118.
- 김영선, 옥선화(2005). 가족 기업 종사자의 일-가족 갈등 및 직업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pp.223-239.
- 김옥선, 김효선(2010). 다중 역할의 상호향상 효과: 일-가정 영역간 자원의 긍정적 전이 에 관한 분석. *경영학 연구*, 39(2), pp.375-407.
- 김정주, 김용미(2011).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아동기 경험이 아버지 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이동교육*, 201(1), pp.113-129.
- 김지현(2011).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 효능감, 부모 역할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9(5), pp.49-57.
- 김지현, 정지나, 조윤주, 한준아(2008). *부모 교육*. 서울: 양서원.
- 김태근(2006). *U-CAN 회귀 분석*. 서울: 인간과 복지.

- 남효정, 이숙현(2011).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 정도가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2), pp.107-121.
- 문혁준(2004).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42(11), pp.109-122.
- 박기남(2004). 노년기 삶의 만족도의 성별 차이. 한국노년학, 24(3), pp.13-29.
- 박은옥(2001). 유배우 근로자의 직업 만족도와 결혼 만족도.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2(3), pp.661-669.
- 박정아(2004). 중앙 행정부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와 우울. 석사학위논문, 산업보건학과, 연세대학교, 서울.
- 방하남(2000). 직무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의 결정 요인과 상호작용 효과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3(특별호), pp.133-154.
- 손수민(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비교와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1), pp.331-357.
- 서울시(2012). 통계로 본 서울 여성의 경제 활동. 서울: 서울시.
- 서혜영, 이숙현(2002). 아버지의 직업 만족도 및 가족 만족도가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4(3), pp.27-51.
- 윤종희, 이해경(1997). 배우자가 없는 여성 노인의 자아 존중감, 건강 상태, 가족 관계, 사회 활동 참여도에 따른 생활 만족도. 한국노년학, 17(1), pp.289-304.
- 이명주(2002). 중년 남성의 직무 스트레스와 대처 방안 및 사회적 지지에 따른 삶의 만족도.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동덕여자대학교, 서울.
- 이선희, 도현심(2007). 취업모의 직업 만족도 및 양육 행동과 남녀 아동의 문제 행동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8(5), pp.269-284.
- 이영환(2008).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아동과 권리, 12(2), pp.189-210.
- 이은아(2007). 중년기 남성의 가족 및 직업 관련 변인과 생활 만족도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6(3), pp.547-562.
- 장재윤, 유경, 서은국, 최인철(2007). 일상재구성법을 통해 살펴본 남녀 직장인과 주부의 삶의 질.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1), pp.123-139.
- 정현숙, 유계숙(2007). 가족 관계. 서울: 신정.

- 조정문(1995). 결혼 생활의 공평성 인지와 결혼 만족. *한국사회학*, 29, pp.559-584.
- 진미정(2003). 저소득층 여성의 취업과 우울 증세간의 인과관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7), pp.169-184.
- 최정혜(2005). 맞벌이 부부의 가족 스트레스, 대처 전략 및 직업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43(10), pp.55-68.
- 통계청(2010). 한국의 사회 지표. 대전: 통계청.
- 하오령, 권정혜(2006). 기혼 직장 여성의 정신 건강과 역할 만족도-역할 갈등, 완벽주의 및 가족 지지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3), pp.675-696.
- 현경자(2005). 결혼의 질과 안정을 저해하는 부부 갈등 영역.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1(12), pp.158-193.
- 현경자, 김연수(2002). 기혼 남녀의 결혼 만족 이유에 대한 내용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49(5), pp.225-263.
- 황혜원(2012). 어린 자녀를 둔 저소득 취업모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1), pp.47-64.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pp.83-96.
- Bonoli, G.(2007). Time matters: Postindustrialization, new social risks, and welfare state adaptation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0(5), pp.495-520.
- Bowling, A., Windsor, J.(2001). Towards the good life: A population survey dimension of quality of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 pp.55-81.
- Bradbury, T. N., Fincham, F. D., Beach, S. R.(2000). Research on the nature and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A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4), pp.964-980.
- Campbell, A.(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New York: McGraw-Hill.
- Canfield, K. R.(1995). *Effective fathering practices and fathering satisfaction related to father's life course*. Ph. D. dissertation, School of Family Studies and Human Services, Kansas state university, Missouri.

- Coverman, S.(1989). Role overload, role conflict, and stress: Addressing consequences of multiple role demands. *Social Forces*, 67(4), pp.965-982.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Griffin, S.(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ty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pp.71-75.
- Duke, H. D., Rose, H. A., Halverson, C. F.(1997). *Predictors of parenting satisfaction*. Symposium Conducted at the 58th Annual Conference of the NCFR, Kansas city, Missouri, USA.
- Eid, M., Diener, E.(2004). Global judgments of subjective well-being: Situational variability and long-term stability. *Social Indicators Research*, 65, pp.245-277.
- Gilligan, C.(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uidubaldi, J., Cleminshaw, H. K.(198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leminshaw-Guidubaldi parental satisfaction. in Fine, M. J.(ed.). *The second handbook on parent educ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Inc.
- Gutek, B. A., Searle, S., Klepa, L.(1991). Rational versus role explanation for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6, pp.560-568.
- Kabanoff, B.(1980). Work and nonwork: A review of models, methods, and finding. *Psychological Bulletin*, 88, pp.60-77.
- Kahn, R. L., Juster, R. T.(2002). Well-being: Concepts and measures. *Journal of Social Issues*, 58(4), pp.627-644.
- Krause, N.(2003). Religious meaning and subjective well-being in later life. *Journal of Gerontology*, 58(3), pp.160-170.
- Near, J. P., Smith, C. A., Rice, R. W., Hunt, R. G.(1983). Job satisfaction and nonworks satisfaction as components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pp.126-144.
- Olson, D. H., McCubbin, H. I., Barnes, H. L., Larsen, A. S., Muxen, M. J., Wilson, M. A.(1989). *Families: What makes them work*. News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Roach, A. J., Frazier, L. P., Bowden, S. R.(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3), pp.537-546.
- Vannoy-Hiller, D., Philliber, W. W.(1989). *Equal partners: Successful women in marriage*. News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A Study on the Life Satisfaction of Dual-earner Couples with Young Children Aged Under Six

Cho, Yoon Joo

(Sungshin Women's University)

Han, Jun Ah

(Suwon Science College)

Kim, Ji Hyun

(Hanyang Cyber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general tendencies of marital satisfaction, parental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to analyze the variables which give effects to their life satisfaction. The research subjects were 73 dual-earner couples with children aged under 6. The data from survey using questionnaire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paired-*t* 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Some of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marital satisfaction and parental satisfaction were high among the husbands and wives, but their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scores were average. Secondly, marital satisfaction was higher among the husbands than among the wives. However,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were higher among the wives than among the husbands. Finally,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revealed that the variables explaining the life satisfaction were marital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For the husbands, educational level was included among the predicting factors. The authors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s above, ways for dual-earner couples raise their quality of life in the realms of both family and work.

Keywords: Dual-earner Couple with Infant Child, Marital Satisfaction, Parental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